

“김치·성형… 외국인 관점서 진짜 한국모습 소개”

· 주아노 홍익대 교수, 영문으로 쓴 한국 문화 가이드북 펴내

“역동적이고 다양한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리고 싶었어요.”

올해로 한국 생활 21년째인 뱅자맹 주아노 홍익대 불어불문학과 교수(47)가 영문으로 쓴 한국 문화 가이드북 <스케치즈 오브 코리아(Sketches of Korea)>(서울셀렉션)를 펴낸 이유는 간단했다. 서울 시간동 서울셀렉션 서점에서 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 안내서는 대개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깔고 깔끔한 이미지를 내세운 게 대다수”라고 지적했다.



뱅자맹 주아노 교수는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21세기 한국만의 풍경은 이방인에게 매력적으로 비치곤 한다”고 말했다. | 이준현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주아노가 글을 쓰고, 10년째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일러스트레이터 엘로디 도르낭 드 루빌이 그림을 그린 <스케치즈 오브 코리아>는 한국의 전통문화와 사회적 관습, 예술, 종교 등 47가지 한국적 테마를 담았다. 김치부터 시작해 번데기, 폭탄주, 대중목욕탕 등 한국에 처음 와서 맞닥뜨렸을 그들의 낯선 경험과 성형미인, 재개발에 스러지는 판자촌, 스마트폰 삼매경에 빠진 사람들로 가득 찬 지하철 풍경 등을 생생하게 전하는 실용적인 한국 가이드북이다.

책 제목에 ‘스케치’라는 단어를 썼다고 한국 문화에 대한 표피적인 인상기를 기술한 책일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져서는 곤란하다. 책에는 장황한 설명은 없어도 한국 문화에 대한 나름대로의 식견과 관

점이 압축돼 있다. 그는 무조건 한국 문화를 치켜세우지 않는다. 그렇다고 폄훼하지도 않는다. 주아노는 “팩트(사실)에 집중했다”면서도 “오랜 시간 토론하고 고른 아이টে들에 나의 한국관이 들어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소르본 파리4대학에서 인문학과 철학을 전공하고 1994년 군복무차 해외 파견교사로 한국 땅을 밟은 주아노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한국의 ‘정’에 매료돼 한국에 정착하기로 했다. 전공도 문화인류학으로 바꿨다. 서울 이태원에서 프랑스 식당도 운영하는 그는 번역가, 전시 기획자, 음식 칼럼니스트, 한국 요리 TV프로그램 진행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일러스트를 맡은 루빌은 번데기를 먹고, 김치를 담그고, 서예를 배우는 등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하면서 그림을 완성했다.

프랑스는 19세기 한국에 대한 신문기사와 책이 많이 나온 나라 중 하나다. 프랑스에 고착된 한국인 이미지는 조선시대 사람처럼 갓을 쓰고 한복을 입고 여유롭게 사는 모습이라고 주아노는 설명했다.

“한국은 복합적이고 현대적인 사회로 변했잖아요. 전통적이지 않고 아주 예쁘지 않은 모습들도 외국인들에게는 재밌고 멋있게 보이지요. 그런 문화를 애써 감출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한국과 인연을 맺기 전 주아노에게 한국은 ‘메이드 인 코리아’ ‘큰 공장’ 등과 같은 이미지가 전부였다고 한다. 그는 “선입견이었다”며 “막상 한국에 오니 오랜 역사와 문화를 가진 나라인데도 서점에서는 프랑스어나 영어로 된 한국 가이드북을 접할 수 없었던 데다, 술자리나 식사자리에서 실수할까 봐 긴장의 나날을 보냈다”고 회상했다.

책에서 주아노는 한국의 술문화를 소개하며 ‘폭탄주’ 제조법까지 알려준다. 그는 “원래 술을 좋아하지만, 직업도 직업인지라 폭탄주를 마시지 않을 수 없다. 관찰은 술”이라며 웃었다. 앞으로 한국 문화를 좀 더 깊이 있게 해석한 책을 내고 싶다는 그는 한국인들이 자국 문화에 관심을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도 내비쳤다.

“프랑스와 한국은 교육제도나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다르겠지만, 문화를 사랑하는 마음은 같다고 봅니다. 생각에만 머무르지 않고 행동으로 자국 문화에 애착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요.”

<고영득 기자 godo@kyunghyang.com>

입력 : 2015-05-06 21:25:18 | 수정 : 2015-05-06 21:26:02